

# 지식정보사회는 사람이 곧 자원



姜 玟 鎬

(한국정보통신대학교 광인터넷연구센터 소장)

엣그제 2002년의 마지막 달력을 넘기면서 매서운 추위가 우리의 옷깃을 여미게 한다. 여기저기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부르짖는 대통령 선거 구호가 나부끼고, 낚시 동호인들의 겨울 낚시 광고도 여기저기에 보이기 시작한다.

2012년까지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국가기술지도(National Technology Road Map)도 이제 확정 단계에 이르렀다. 이제,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게되는 시점에, 겨울남시와 과학기술의 발전 사이의 유사점을 살펴보면, 나의 주장을 몇자 적어 보기로 한다.

먼저, 겨울남시의 목표 함수를 경제에 맞추어 보자. 취미삼아서 고기를 잡아도 좋고, 잡지 않아도 좋은 낚시는 논외로 하겠다. 취미삼아 과학기술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테니까. 훌륭한 낚시꾼은 어떤 모습일

까?

첫째, 전문 낚시꾼은 원하는 물고기가 많은 낚시터를 골라야 할 것이다. 이 때, 낚시터와 관련된 지난 겨울의 데이터, 지난 여름의 경험과 그 사이의 예상되는 변화도 감안할 것이다. 과학기술 분야의 낚시터는 IT(정보통신), BT(생명공학), NT(나노공학), CT(문화 콘텐츠), ET(환경공학), ST(우주항공) 등의 소위 6T 분야이다.

2005년까지 IT 분야의 27만명, CT 분야의 11만명을 포함하여 약 40만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를 보면, 낚시꾼이 IT와 CT 낚시터에서 승부를 걸 확률이 95%이다.

둘째, 전문 낚시꾼은 어떤 물고기를 잡을 것인지를 미리 정하고, 월척상, 대어상, 다어상 등의 목표를 정할 것이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IT나 CT 등에서 내가 1등을 할 수 있는 기술 제품을 골라야 할 것이다.

셋째, 어떻게 낚시터의 얼음을 깨 것인가? 날카로운 송곳이 하나쯤 있으면 좋겠다. 황무지의 흑백사진 한 장과 거북선 그림이 코인된 동전 한 잎으로 선박제작 수주를 받았던 '하면 된다'는 40년 전의 정신만으로는, 얼음 두터운 겨울 낚시터를 더 이상 열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의 송곳은

무엇인가? 창의적인 지식, 정보로 무장된 과학기술인이다. 지식과 정보가 경제활동, 산업구조, 생활양식 등 사회 각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유형의 제품생산 중심에서 무형의 지식, 정보, 서비스 중심으로 부가가치 영역이 급격히 이동하고 있음을 우리는 안다.

## 과학기술 기반구축 절박

과학은 자연의 존재양식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려는 것으로서, 자연의 존재양식은 인간과는 무관하다. 기술은 과학의 결과를 인간의 삶에 활용하려는 것으로서, 인간 중심이다. 공학은 하늘(과학)과 땅(사람, 현실)을 연결하여 이롭게 하는 학문이라고 배웠다.

우리는 한 때의 자연과학 중시시대에서, 지금은 돈벌이 잘 되는 건강공학자(의사, 치과, 한의과 전공자 등)가 최고의 인기를 끄는 시대로 변해왔다. 말이 많다. 마치 큰 일이나 난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의 시장이다. 막무가내로 과학기술이 중요하니, 내 아들, 내 딸한테 공과대학으로 가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시장에서 대우받는 쪽으로 사람도 흘러간다. 이웃나라에서 3년 연속 노벨 과학상이 나왔다고, 우리나라에서도 노벨 물리학상, 화학상을 받고자 한

**우리의 '하면 된다'는 정신을 발전시킨  
휴대전화·초고속인터넷·게임산업 등의 IT 분야처럼  
우리는 21세기 지식정보산업 분야에서 1등 상품을 만들어 오고 있다.  
우리가 1등인 분야를 보다 튼튼히 해서 1등 상품을  
타 분야로 넓혀나간다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다면 되겠는가? 우리나라는 아직도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공학기술의 기반 구축이 절박한 때이라고 생각한다. 이쪽의 시장이 착실히 활성화되면, 노벨 과학상은 훗날 자연스럽게 얻어질 것이 아닌가? 이처럼 많은 대학생들이 나라가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정진하기 위해서는, 각종 사회시스템의 발전을 통하여, 내 자식을 스스로 없이 이 분야로 추천할 수 있을 때에야 가능하다.

다행히도 30~40년 전에 인기를 누렸던 화학공학자들은 생명공학 쪽으로 접목하고, 20~30년 전의 기계공학자들은 나노공학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으며, 10~20년 전의 전자공학자들은 컴퓨터, 소프트웨어공학 쪽으로 텃밭을 새로 만들고 있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건축, 예술하는 사람들이, 디지털 미디어, 영상 예술 쪽에서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나는 이러한 열풍이 우리나라를 세계 1등으로 만드는 송곳일 거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처럼 역동적인 나라가 또 있는가?

그러면, 우리나라가 1등 선진국이 되는 길은 명확하다. 선진국은 이미 조직, 기술과 경험, 마케팅 기법, 시장 점유율 면에서 훨씬 앞서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도국은 선조로

부터 물려 받은 것이 없다. 지난 40년간의 '하면 된다'는 대안없는 일념으로 일군 조선,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의 대량 생산기술의 신화로는 충분하지가 않다. 어쩌면 과거 일본의 성공 전철을 우리가 지금까지 밟고 있는지 모른다. 오늘의 일본의 어려움이 내일에 우리의 어려움으로 다가 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전통 천지인(天地人)사상 즉, 천시(天時), 지리(地利)를 십분 활용하는 인화(人和)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지도자 양성 교육기관 절실**

먼저, 지식정보사회로의 이행은 하늘이 우리나라에게 내려준 기회이다. 국토도 좁고, 교통도 불편한 우리나라에서는 농업사회, 산업사회에서는 1등이 될 수 있는 기본이 되지 못한다.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사람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우리 국민의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찾아내는 창의성은 지식정보사회를 선도하는 힘인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의 강점을 살피보자. '하면 된다' 정신을 발전시킨 휴대전화기, 초고속 인터넷, 게임산업 등의 IT 분야의 예에서처럼 우리는 21세기 지식정보산업 분야에서도 1등 상품을 계속 만들어 오고 있다. OECD에서 교육투자 및 통신비 지

출 비중이 1등인 한국은 전통적으로 교육 투자에 인색하지 않았고, 가계비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세계 2등의 2배가 넘는다. 이러한 수치는 지식정보사회의 기반구조가 이미 세계 최고이며, 국민들도 이러한 세상에 잘 익숙해 지고 있는 것을 대변한다.

따라서, 우리가 1등인 분야를 보다 튼튼히 해서 국제경쟁이라는 두터운 얼음에 구멍을 확실히 만든 다음에, 1등 상품을 타 분야로 넓혀 나간다는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아직은 날카로운 송곳이 필요하지, 넓게 펼쳐 나갈 때가 아니다. 새로운 IT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어부를 키우는 일 또한 중요하다. 이들이 새로운 지식사회를 열고, 이끌어 나가는 열쇠인 것이다. 새로이 태동하는 틈새기술을 이해하고, 경영을 접목할 수 있는 지도자, 골프, 스키, 교양 등으로 단련된 국제 감각과 어학 수준을 갖춘 지도자, 개성화된 학위과정과 현장감각을 익힌 지도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의 역할이 더 없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를 새로운 지식정보사회로 이끌어 나갈 사관생도를 양성해 나가는 곳 중에, 1999년에 문을 연 한국정보통신대학교(www.icu.ac.kr)의 역할도 이런 면에서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④7